
과거 10년동안 단순 일반촬영 검사항목 및 촬영건수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방사선학과

이신영, 김잔디, 홍하림, 김혜성, 김영수, 박영근

목 적 : 의료 환경 변화에서 단순 일반 촬영을 중심으로 방사선과 학생들이 임상에서의 변화를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임상에 나아가 좀 더 나은 의료인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과거 10년 동안 단순 일반촬영 검사항목과 촬영건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1992년, 1994년, 2000년 제외) 서울 대학교 병원 진단 방사선과 일반촬영실에서 시행된 항목과 건수를 기록한 과거 10년 동안의 진단방사선과 연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건수,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항목, 새롭게 증가를 보이는 항목, 감소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건수에 대한 비교는 1989년과 비교하여 2002년에는 123.8%로 두 배가 넘는 증가를 보였다. 증가를 보이는 항목과 건수는 흉부검사에서 1989년과 비교하여 2002년에는 106.1%의 증가를 보였고, 두부검사에서는 93.5%, 골반검사에서는 146.27%, 복부검사에서는 157.0%, 사지검사에서는 198.4%의 증가를 보였다. 감소를 보이는 항목과 건수에서는 골반계측검사가 71건에서 2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새롭게 추가되어 증가하고 있는 항목과 건수로는 견관절에서 충돌 증후군 촬영 2001년 523건에서 2002년 67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관절염 측정 촬영 1999년 297건에서 2002년 675건으로 급증하였고, CD 복사가 2002년에 103건을 보이며 새롭게 검사항목에 추가되었다.

결 론 : 단순 일반촬영은 의료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변화와 도입속에서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질병 진단의 객관적인 평가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변화에 의한 일반 촬영 항목 및 건수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 방사선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과 재학생들이 임상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